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일반직 거센 반발

'본청 사업·인력 축소 통한 학교 지원 강화' 조례안 입법 예고

노조 "왜 우리만 희생양 돼야 하나"… 29일 폐기 촉구 집회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추진하는 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전남도의회에 제출될 조직개편안은 '본청 사업 및 인력 축소를 통한 학교 현장 강화'로 요약되는데, 일반직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면서다. 일반직 노조는 "조직개편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희생은 왜 일반직 공무원만 떠안아야 하나. 고 통은 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려서지 않을 기세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1일 전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직개편안은 본청과 직속 기관의 3급 당관, 13과, 62팀을 4급당관, 11과, 57팀으로 축소 개편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 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 등을 축소하면서 생겨나는 인력과 예산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투입해 학교와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조직개편 추진 배경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직 노조는 "조직개편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본청 인력의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전보가 불가피한데 전보되는 직원 상당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게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전보 예상 공무원 53명 가운데 전문직은 6명에 불과하고 일반직은 47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계에 팔려있던 '보견팀'을 행정국으로 옮기는 내용도 일반직 노조 반발을 사고 있다. 보견팀 소속이 행정국으로 바뀌면 학교 현장에서 보견교사(또는 보견교사 직무를 대리하던 교사) 업무 상당 부분이 학교 행정실 공무원들에게 떠넘겨진다는 게 일반직 노조의 설명이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교사 업무 경감이란 취지는 좋으나 일반직 공무원 희생만 강요해서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이 과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런 판단 아래 일반직 노조는 지난 22일에는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던 도의회를 찾아가 기자회견과 함께 조례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으며, 오는 29일에는 도교육청 앞에서 조례안 폐기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광용일반직노조(도교육청노조) 사무총장은 "학교는 교사와 행정직원이라는 양대 축으로 운영된다"며 "교육 수요자(학생)를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교육현장에 더 큰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는 일이라 일부 구성원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조직개편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한 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에 제출할 최종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7 해질 17:22 달뜨기 20:22 달지기 10:04

추위 '주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에 안개 짙은 곳 있겠다.

| | | | | | |
|----|----|-------|-----|----|-------|
| 광주 | 맑음 | 3/16 | 보성 | 맑음 | -1/14 |
| 목포 | 맑음 | 5/16 | 순천 | 맑음 | 3/16 |
| 여수 | 맑음 | 8/15 | 영광 | 맑음 | 0/16 |
| 나주 | 맑음 | -1/16 | 진도 | 맑음 | 2/16 |
| 완도 | 맑음 | 6/15 | 전주 | 맑음 | 3/15 |
| 구례 | 맑음 | -1/15 | 군산 | 맑음 | 3/14 |
| 강진 | 맑음 | 1/15 | 남원 | 맑음 | -1/15 |
| 해남 | 맑음 | 0/15 | 흑산도 | 맑음 | 10/15 |
| 장성 | 맑음 | 0/15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서해 앞바다 | 북동~동 | 0.5 | 남동~남 | 0.5 |
| 남해 앞바다 | 북동~동 | 0.5~1.0 | 남동~남 | 0.5~1.5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동~동 | 0.5 | 북동~동 | 0.5 |
| 남해 서부 (면바다대) | 북동~동 | 0.5~1.0 | 북동~동 | 0.5~1.0 |
| 면바다(대) | 북동~동 | 1.0~1.5 | 북동~동 | 1.0~1.5 |

◇생활지수

| | |
|------|-------|
| 뇌졸중 | 매우 높음 |
| 감기 | 매우 높음 |
| 미세먼지 | 보통 |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09:04 | 03:51 |
| | 21:44 | 16:37 |
| 여수 | 04:32 | 11:11 |
| | 17:11 | 23:14 |

◇주간 날씨

| 27(화) | 28(수) | 29(목) | 30(금) | 12/1(토) | 2(일) | 3(월) |
|-------|-------|-------|-------|---------|------|------|
| ☁ | ☁ | ☁ | ☀ | ☀ | ☀ | ☁ |
| 6/17 | 3/13 | 3/13 | 3/13 | 2/11 | 1/11 | 3/12 |

올 겨울철새 도래 영암호 전국 1위

11월 12만마리 찾아

올 겨울 철새는 영암호 삼호읍 영암호에 가장 많이 도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지난 16~17일 전국 주요습지 80곳을 대상으로 조류 동시센서스를 진행한 결과, 총 164종 75만9393마리의 겨울철새가 도래한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철새 수는 지역별로 영암호(12만 4081마리), 간월호(8만4991마리), 철원평야(8만2745마리), 부남호(4만6306마리), 낙동강하구(3만 2513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는 영암호를 비롯한 순천만 1만5846마리, 해남 금호호 1만5252마리, 해남 고전호 7354마리, 강진만 2094마리, 영암 영산호 1962마리, 나주 지석천 723마리, 광주 황룡강 336마리 등 16만 2921마리가 찾아왔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60만7656마리) 보다 1.25배 증가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철새정보시스템(species.nibr.go.kr/bird)에 게재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농가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



안개에 미세먼지 겹쳐 짙은 시야. 광주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한때나쁨'을 보이는 그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25일 오전 광주 남구 사직타워에서 바라본 광주도심이 미세먼지가 섞인 안개로 인해 뿌옇게 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왜곡 '가짜뉴스' 대응 전담기구 설치해야"

전남대 5·18연구소 집담회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무차별 유포되고 있는 '5·18가짜뉴스'의 실태와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26일 오후 5시 전남대 용봉관 3층 회의실에서 '5·18 가짜뉴스 확산실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올해 5번째 집담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담회에는 박용수 전남대 5·18연구소 객원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유튜브와 블러그 등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5·18 폄훼·왜곡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5·18에 대한 왜곡은 '북한군 침투설', '광주교도소 습격설'에서 더 나아가 '5·18 유공자 특혜설' 등 다양한 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는 자신을 5·18에 광주로 투입됐던 북한군이나 계엄군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뉴스형식을 빌려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5·18가짜뉴스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18연구소 관계자는 "5·18에 대한 왜곡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며 내용과 방식이 교묘하고 집요해졌다"며 "이번 집담회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시 소방본부 74곳 고시원 특별점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일부터 9일 간 광주지역 500㎡ 이상(바닥면적 합계) 고시원 74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50곳에서 20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중로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화재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소방공무원 등 21개 반 52명이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관리상태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비상구 폐쇄·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화재 위험요인 등을 조사결과 74곳 중 50곳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노후 소화기 비치·유도 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불량과 건축물 임의변경 등 206건의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 가운데 불법 증축 등 건축물을 임의변경한 3곳에 대해서는 기관통보를 하고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 휴대용비상조명등 미부착, 유도등 점등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12월 14일까지 소규모 고시원 98곳에 대해서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103척 안전검사

군산해양경찰은 "전북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705척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103척을 전수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를 장착한 레저 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같은 소형선박으로, 개인 활동자는 5년마다, 수상레저 사업자는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자치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한 뒤 내년 3월부터 안전 미검사, 미등록, 보험 미가입 레저기구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안전 미검사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광주 · 전남지역 주택시장 오를것인가? 떨어질것인가?

(새로운 고강도 부동산대책 및 토지공개념 완전정복!!)

새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각종규제·공급과잉·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떠오르는 토지시장의 해답은 무엇일까?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기북부지역의 전망은? 국가에서 개발하는 신개발지를 찾아라

강의내용

- 수도권 및 지방 주택, 아파트시장의 전망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평택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분석
- 최고의 투자 유망지역을 찾아라
-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법 특강!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투자비법 공개!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박관식의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1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2018년 11월 28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6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마리엇)역차 5분출구 직진 200m(3분소요))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무료상담 진행



박관식 대표

- 한국토지개발원
- 한국경제TV '박관식의 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 RTN 부동산TV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 MTN 마니투데이 '박관식의 TV 토지이야기' 출연
- 한국경제TV '부동산테크 NOW' 출연
- 한국경제TV '부동산워라민' 출연



최기홍 전문가

- 한국토지개발원
- 서울경제TV SEN '똑똑부동산' 생방송 출연중
- GTV '통큰부동산' 출연중
- GMTV 출연중
- COOKTV 출연중
- 생활체육TV 출연중
- NOLLTV 출연중

DJm 카페 "한국토지개발원 토지의 神"에 가입해서 부동산정보교류 함께해요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주세요.